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	 금융감독원
보도		2018.8.31.(금) 배포시		배포	2018.8.31.(금)
책 임 자	금융위 감독제도팀장 이 동 엽(02-2100-2591)		담 당 자	김 수 빈 사무관 (02-2100-2594)	
	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 서 정 호(02-3145-8200)			박 상 원 팀 장 (02-3145-8204)	

제 목 : 「한·베트남 금융그룹감독 워크숍」 개최

- 「한·베트남 금융그룹감독 워크숍」이 베트남 금융당국 주최로 8.27(월)~29(수), 3일간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됨
 - * 워크숍에는 베트남 금융당국, 재무부, 중앙은행 등 정부기관과 베트남 4대 은행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
- 이번 워크숍을 통해, ^① 한국의 금융인프라 구축·금융제도 도입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베트남과 상생협력 강화, ^② 베트남 금융당국과의 네트워킹 기회 마련을 통한 우리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 지원 등을 기대

1. 워크숍 개요

□ 「한·베트남 금융그룹감독 워크숍」이 베트남 금융당국* 주최로 8.27(월)~29(수), 3일간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됨

* NFSC(National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; 국가금융감독위원회): 금융정책 관련 총리자문기구로 금융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·마련

- 이번 워크숍은 「금융그룹 감독제도」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, 베트남은 한국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당국(NFSC)의 금융그룹감독에 대한 이해 제고와 감독능력 함양을 희망

- 워크숍에는 베트남 금융당국, 재무부, 중앙은행 등 정부기관과 베트남 4대은행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였음
 - 쩡응 반 프억(Truong Van Phuoc) NFSC 위원장대행, 하 후이 뚜언(Ha Huy Tuan) NFSC 부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, 높은 관심과 열기 속에서 워크숍이 진행됨
 - 동 워크숍에서 우리측은 금융위·금감원 담당자, 학계·업계 전문가*가 참여하여,
 - ①한국 금융그룹감독 도입방향, 자본적정성 기준 등 제도에 대한 내용, ②그룹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금융지주회사의 현장 경험 등을 폭 넓게 소개하였으며,
 - 베트남의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 등에 대해 다각도로 의견을 교환하였음
- * 금융위 이동엽 감독제도팀장, 김수빈 감독제도팀 사무관,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 형남대 수석, 동국대 강경훈 교수, 신한금융지주 CPO 김임근 상무, NH농협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 박명호·성대원 차장

2. 이번 워크숍의 의의

- 이번 워크숍은 新남방정책의 핵심파트너인 베트남과의 금융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서,
 - 지난 3월 양국 금융당국 고위급 회담*(18.3월)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개최되었음
- *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, 재무부 장관(18.3.22), 국가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(18.3.23) 등과 면담
- ※ 新남방정책 :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와의 교류·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상생번영을 추구하는 외교정책
-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국의 금융감독제도 및 금융인프라 발전 경험을 베트남과 공유함으로써 금융분야 협력의 성과가 가시화되고,
 - 아울러, 베트남 금융당국과 현지진출 한국 금융사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기회도 마련함으로써, 우리 금융사의 베트남 진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
①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 현황

- 베트남에는 현재 35개의 국내 금융사가 진출
- 점포 수 기준, 중국(64개), 미국(55개)에 이어 세 번째, 新남방 정책(아세안·인도) 대상국가 중 첫 번째로 많은 점포(50개) 운영

< 베트남 진출 국내 금융회사 현황 >

	은행	금융투자	보험	여전	총계	아세안·인도 대비 비중
국내 금융회사 수	10사	13사	8사	4사	35사	28%
국내금융사 점포 수	19개	15개	11개	5개	50개	32%

- 베트남 진출 국내금융사의 현지 총자산도 증가추세

* 국내은행의 베트남점포 총자산: 37.7억불('15년말) → 48억불('16년말) → 57억불('17년말)

② 베트남 금융산업 현황

- 베트남의 금융회사(315개)는 여수신기관(121개), 보험회사(64개), 증권회사(84개), 자산운용사(46개) 등으로 구성
- 금융회사 총자산은 약 4,570억불('18.6월), GDP의 209% 수준
※ 한국 금융기관 총자산 : 약 5조불('17.6월기준), GDP의 330% 수준
- 업권별 자산은 은행 4,430억불, 증권 450억불, 보험 145억불 수준
- 베트남 금융그룹의 형태는 ①은행모회사그룹, ②지주형태의 그룹, ③금산결합그룹 등 다양

※ 베트남 4대 은행은 은행모회사그룹 형태로서 국영은행으로 운영

③ 베트남 금융감독체계

- 베트남은 현재 은행, 증권, 보험 등 업권별로 감독하고 있으며, 최근 금융그룹감독 제도도입을 추진 중

- 총리의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NFSC 주축*으로 제도도입 추진

* NFSC(National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; 국가금융감독위원회): 금융정책 관련 총리자문 기구로 법령 제개정 등 권한은 없으나, 총리권한을 활용하여 금융정책 추진